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7월 ~8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맥주, 라벨링, 영양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맥주, 라벨링, 영양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5.3.11

FDA의 맥주 라벨링제도, 불충분한 영양 정보 제공으로 논란

2016.6.24

알코올 및 담배 세금 관리국, 와인 라벨 개정 제안

2016.7.12

맥주협회 영양표시 동의 성명

핵심이슈
도출

“미국 주요 맥주기업, 2020년까지 영양표시 라벨 부착”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미국 주요 맥주기업, 2020년까지 영양표시 라벨 부착

2016년 7월 12일, 미국 맥주협회(Beer Institute)의 주요 양조기업들이 2020년까지 자사 맥주 제품에 영양표시(Nutrition Facts Label)를 부착하는 것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非) 알코올음료에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영양표시 라벨 부착을 시행할 예정이다.

맥주의 경우 1회당 제공량, 칼로리, 탄수화물을 비롯한 영양성분, 알코올 함량 등이 제공된다. 또한 미국 맥주협회에서는 맥주에도 럼과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포함되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올바른 표기 방법을 도입,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지 언론사들은 이제는 미국 식품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 자리 잡은 '건강'이 이번 영양표시제 도입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Nielsen Research社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2%의 맥주 소비자들이 영양표시 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제품 구매 시 참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제품의 영양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며, 비만에 대한 우려로 칼로리 정보를 확인하는 등 식품 영양표시 라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짐 맥그리비(Jim McGreevy) 미국 맥주협회장은 자발적 영양표시제를 두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맥주기업들은 맥주의 재료와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고 있고, 자사 제품의 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맥주 제품의 영양표시 라벨 부착은 미국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수출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맥주업계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트렌드에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류에 포함되지만 도수가 낮아 음료수처럼 소비되고 있는 맥주는 최근 다양한 맛과 성분을 강조하여 출시되고 있다. 미국 맥주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낮추고 영양성분에도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